

NH농협은행의 따뜻한 손길 빛 발하다

농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

남원중앙초 '우주공간' 2호 완공

농촌 지역 아동들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NH농협은행의 따뜻한 손길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지난 31일 남원중앙초등학교에서 농촌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 '초록사다리X우주공간' 프로젝트의 2호 완공식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NH농협은행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2024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해 왔다.

작년 11월, 강원 태백 함태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우주공간'이 탄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남원중앙초등학교에서 두 번째 공간이 완공됐다.

'우주공간'은 '우리가 주인인 공간'의 줄임말로,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설계하고 꾸민 특별한 공간이다. 남원중앙

초 우주공간은 세 차례에 걸친 아동 참여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성됐다.

공간에는 해먹과 빈백(편안한 쿠션 의자), 볼풀장, 클라이밍 시설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다.

또한 탁구대와 당구대도 설치되어 다양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완공식에서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초록사다리X우주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이 공간이 농촌 지역 아동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껏"이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1일 남원중앙초등학교에서 농촌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 '초록사다리X우주공간' 프로젝트의 2호 완공식을 가졌다.

속했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 NH농협은행에서 이러한 공간확보를 통한 따뜻한 나눔이 농촌 아동들의 어린 시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의 행복채움공간을 지켜본 한 도민은 NH 농협은행에서 농촌아동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행복채움공간이 완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직무중심 채용

신입직원 168명 선발 예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025년 상반기 신입직원 168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4월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누리집(www.nps.or.kr)을 통해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20일 발표되고 6월 30일 임용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서류전형에서 직무능력 기술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필기시험에서는 공단 직무와 연계된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며, 직무수행능력 면접을 통해 직무관련 경험을 평가하는 등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직무역량 검증을 철저히 해 직무중심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형평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18명, 취업지원대상자 25명, 고졸자 21명 등 총 64명을 별도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서류전형 가점 부여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기존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에서 '보호시설 퇴소자로서 만 34세 이하로 완화가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김욱기 기자

전은 목련회,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전북생명의숲(이사장 박해영)과 함께 전주 건지산 전북대학교 학술림 일원에서 제1회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는 지역사회 선한영향력 확산에 앞장 서고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연중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환경보호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목련회는 일선에서 나무심기 활동과 기부에 손쉽게 재미있게 참여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1인당 나무구입비용 1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목련회 회원 및 자녀 40여명은 편백나무 3~4년생 300주 등을 직접 심고 식재한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 과정을 지켜보기로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통원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수도권 직거래 판로개척을 위해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맛과 가치를 한눈에

바이오통원, 수원 메가쇼서 도내 기업 홍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통원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통원)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수도권 직거래 판로개척을 위해 전북공동관을 운영했으며, 전시회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식품 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판로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번 '2025 수원 메가쇼 시즌1'에서는 도내 전통식품 및 해양수산물 기업 24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소비자 체험 행사와 식식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현장 판매실적 약 2억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참가기업들은 현장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통원은 도내 농수산물식품기업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본 제공 부스가 아닌 전북의 개성이 담긴 테마로 "전북미식 삼시세끼" 감성테마와 "맛 만든 신선함!",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맛!"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고유의 맛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

램으로 운영됐다.

바이오통원만의 차별화 공동 판로 개척 행사가 참가한 진안 기업 '참식품'은 "전북공동관이라는 형태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실무매로 이어지는 고객이 많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소비자와 직접 접점의 기회를 앞으로도 자주 만들고 싶다"라고 전했다.

익산에서 감을 제조하고 있는 '에스사이다'는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제품이 가진 '맛 만든 신선함'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의 반응이 좋아 향후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상의, ESG 진단 평가·컨설팅 참여기업 11일까지 모집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공급망 ESG지원센터에서는 회원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ESG 진단 평가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ESG 규범을 법제화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에도 환경 보호, 노동인권 보장,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 ESG 관련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탄소배출 관리, 유해 물질 규제, ESG공급망

구축했다.

이에 반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원 부족 등으로 ESG 경영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 소재로의 생산라인 전환이나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자원과 시간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주상의는 회원기업의 실질적인 ESG도입을 돕기 위해 교육부터 진단, 실행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다.

ESG가 처음인 기업은 기초진단 및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일반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컨설팅은 ESG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시 ESG전문가관 진단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심있는 회원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산업진흥부(063-280-1153)에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농촌진흥청은 주한스위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를 지난 31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협력과 향후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농진청-스위스 농업 대표단, 농업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주한스위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를 지난 31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협력과 향후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이 기획한 '흙 이야기(Soil Storie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위스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의 방한에 맞춰 마련됐다.

흙 이야기(Soil Stories)는 인간과 토양 관계 탐구, 식량안보,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세계적인 농업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주한스위스대사관이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회에 스위스 측에서는 농업 생태 분야 정부 기관인 연방식품농

업환경부(Agroscope)를 비롯해 유기농업연구소(FiBL), 취리히 공과 대학연구소(ETH Zurich) 등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의 전문가, 교수가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대표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업공학부 전문가와 기술협력국 국제협력 담당자가 함께 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유기농업,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와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스위스 측은 자국의 농업 관점과 기술을 공유하고 스마트 농업, 순환농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종합 토론 시간에 양국 농업기술과 정책을 비교하고, 농업과학 기술과 정책 연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욱기 기자

새만금 제2산단 조성 시행 본격

새만금개발공사, 시행자로 지정돼… 배후도시용지

최소 100만평 이상 규모 신규 산업용지 공급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가칭)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4권역 배후도시용지 면적(약 10㎢) 중 최소 3.3㎢(약 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목표로 계획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확대가 결정되었으며, 산단 조성에 장기간(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사는 2024년 8월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 방안 타당성조사를 통해 제2산업단지 계획을 신속히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수변도시 개발 및 육상태양광 사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 전반기 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새롭게 조성될 새만금 제2산단은 '미래기술이 융복합된 글로벌 첨단산업허브 도약'을 목표로, △국가첨단전

락산업 거점, △스마트 융복합단지, △탄소중립도시, △일과 삶의 동행도시를 개발컨셉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새만금 사이언스파크 추진 및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향후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 및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분양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31년부터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제2 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을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중기중앙회, 세계한인비즈 홍보대사에 배우 정준호씨 위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1일 배우 정준호씨를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우 정준호씨는 1995년 MBC 2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영화 두사부일체, 드라마 아이리스, 스카이캐슬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홍보대사로 활동하였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다.

기업전시회에는 K-뷰티와 푸드, 생활용품 등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연설했던 40여개 부스가 설치 예정인데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윌마트, 코스트코 등 미



국 대형 유통업체 납품 바이어와 비즈니스 매칭 기회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조지아 및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펠리 데플러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10여개 주정부 경제관료 등이 참석 예정으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의 네트워킹 강화와 한·미 경제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욱기 기자